

금주일이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
함을 즐겨하여 낮이나 밤
이나 인자함을 생각하고 마음에는 남을 해
칠 생각이 없어 언제나 중생들을 해치지 않
나니 그의 행에는 원수가 없느니라.
(법구경·자인품 11절)

東大新聞

발행인: 김주일이
편집장: 김주일이
주최: 동국대학교
주관: 동국대학교
출판: 동국대학교
등록번호: 100-715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260-3492
FAX: 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제 1185 호 (주간) 199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 (불기 2539년) 10월 23일 (월요일) 1

학부제 중심 학사개편안 확정

19개 학부 52개 전공 2개 계열 28개 학과 교과과정 개편·교수충원 등 박차 가할 듯

1. 서울캠퍼스

대학	계열	학부/계열/학과-전공	모집인원 특차	정기	계
본교	인문	블로그학부	8	52	60
		인문대학	20	20	
문과	인문	사학전공		90	90
		한국어국문학전공	8	32	40
		영어영문학과	10	40	50
		영어통번역학과	30	30	
		일어일문학과	30	30	
이과	자연	수학전공		180	180
		물리학과		180	180
법과	인문	법학과	16	64	80
		사회과학	24	96	120
경상	인문	경제학전공	8	32	40
		경영학전공	57	228	285
생명	자연	생물학과		90	90
		생물자원학과		30	30
공과	자연	전기전자공학전공	42	168	210
		공학부 전기공학전공			

대학	계열	학부/계열/학과-전공	모집인원 특차	정기	계
공과	자연	건축공학전공	24	96	120
		신소재공학전공		84	336
사범	인문	국어교육과		40	40
		영어교육과		40	40
		교육학과		30	30
		기초교육과		40	40
		수학교육과		30	30
예체능	예체능	체육교육과		40	40
		미술교육과		13	13
예술	예체능	연극학과		20	20
		영화학과		20	20
문과	인문	영역학전공(야)		50	50
		중어중문학과(야)		50	50
이과	자연	전산통계학전공(야)		100	100
		반도체학과(야)		40	40
사회	인문	복합학과(야)		40	40
		신문방송학과(야)		50	50
경상	인문	경제학전공(야)		325	325
		경영학전공(야)			
서울캠퍼스 합계					

2. 경주캠퍼스

대학	계열	학부/계열/학과-전공	모집인원 특차	정기	계
본교	인문	블로그학부	40	40	
		인문대학	30	30	
문과	인문	국어교육과	31	31	
		영어교육과	8	8	
		교육학과	5	5	
		기초교육과	10	10	
		수학교육과			
이과	자연	수학전공		390	390
		물리학과		390	390
법과	인문	법학과		130	130
		사회과학		90	90
경상	인문	경제학전공		40	40
		경영학전공		13	13
예술	예체능	연극학과		13	13
		영화학과		12	12
문과	인문	영역학전공(야)		50	50
		중어중문학과(야)		50	50
이과	자연	전산통계학전공(야)		100	100
		반도체학과(야)		40	40
사회	인문	복합학과(야)		40	40
		신문방송학과(야)		50	50
경상	인문	경제학전공(야)		325	325
		경영학전공(야)			
경주캠퍼스 합계					

◇ 본교는 내년도에 19개 학부, 2개 계열, 28개 학과로 4천8백8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신입생들이 학부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과대학 발전위원회 등이 학부제 실시 이후 생활 문제에 관한 보완책을 논의 중에 있다.

동학을 한바탕 태풍속으로 돌아
놓았던 '학부제'란이 지난 9일 학
교당국의 학부제 실시 전격발표와
19일 교육부의 승인으로 인해 일단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학부로 신입
생을 선발게 된다.
송석구(철학)총장은 지난 9일 교
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앞서서
호평에서 전격 기자회견을 통해 '96
년부터 서울·경주캠퍼스 총 97개
학과모집단위를 19개 학부(52개 전
공), 2개 계열(8개 학과), 28개 학과
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부제를 도
입하겠다고 밝혔다.

(표 참조)

확정된 학부제 내용을 살펴보면
본교대학, 이과대학, 경상대학, 상경
대학 등 4개 단과대가 학부제로 개
편되어 전체적으로 68%가 학부 또
는 계열로 통합 운영되는데, 서울캠
퍼스의 사회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이
사회과학계열과 공과계열로 개편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경주캠퍼스
인문대학부와 서울캠퍼스의 인문계
열을 비교했을 때 학과가 기존형태
로 남아있고 한국어문학부로 전환
된 것이 특이하다.

기초의 한 관계자는 학부와 계
열모집에 관해 "계열모집은 학부제
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로서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모습"이라 설명하며
신입생을 소개할별로 학문분야를

통합하여 선발하며 학문의 성격에
따라 3학년 진급시에 학과를 선택,
배정받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학과와 계열, 학부제가 함
께 운영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학부제의 원칙을 잡고 진행하지
않은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이 아니
나"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안진우(국
교4)회장은 "학부제가 올바르게 실
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여건
과 주체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서는
학부제의 장점을 살리지도 못하
거니와 더더욱이 교육의 질을 떨어
뜨리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학부
제에 따른 책임은 학부제를 집행한
교수진들과 학교당국이 져야한다"
고 주장했다. 총학생회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차기 학생회 선거가 마무
리되면 학부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
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주캠퍼스는 학부제안 발표로
학교행정기관의 전거능성이 계속되
던 중 단대별 발전위원회 구성발표
로 각 학생회의 전거능성이 철회되
고 학부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부총장실에서 김갑주 부총장
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학부제에
관해 공개사를 요구, 발전위
원회를 통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두로 언질받았다. 학생참여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안으로 구
체적 논의를 통해 각 과별로 기구
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학부제' 실시 논란은 그동안 학부
제 논의가 몇몇 교수로 구성된 단
과대학 발전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학생의견

수렴'은 학부제 반대'를 외치면서
부터 시작되어 총장실 및 각 단과
대학 학장실을 점거하는 등 서울·
경주 양 캠퍼스를 극한 상황으로
만들었었다.

학부제실시가 결정된 지금 각 단
과대학발전위원회에서 학부제실시

에 따른 후속작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칙 등 제 규정
보완 및 제도정비를 위한 실무팀을
곧 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교과과정 개편, 교수충
원 등에 있어서 학생참여 보장부분
을 논의중에 있다.

학부제실시가 결정된 지금 각 단
과대학발전위원회에서 학부제실시

96학년도 입시요강 확정

96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일자
가 내년 1월18일로 확정됐다.
서울 2천8백90명, 경주 1천9백94
명으로 총 4천8백84명을 선발하게
되는 96학년도 입시요강의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특차모집은 △원서접수= '95.12.25
~ '96.1.12 △모집
단위= 블로그학부, 한국어문학부, 영
어영문학과, 법학과, 사회과학계열,
경찰행정학과, 경상학부, 전자·전기
공학부, 건축·토목공학부, 공과계열,
한외과과, 의예과 △모집정원= 모집
단위 정원의 20% △지원자격= 대학
수학능력시험응시 동일계열 전국상
위7% 이내인자(단 한외과과, 의예과
는 전국상위 3% 이내자) △전형방법
= 고교내신성적(40%) + 대학수학능
력시험(60%)이다.

전기모집의 경우 △원서접수=
'96.1.1~6일 △대학별고사= 논술 △
대학별고사 및 면접= '96.1.18일(단,
서울캠퍼스 예능계 면접고사는 '96.1.
17일) △대학별 고사실시 해당단위
= 서울캠퍼스 예·체능계열외의한
전단위(경주캠퍼스 전학과 제외)
△실기고사= '96.1.18~20 △사범계
학과 교직원·적성검사와 면접고사
= '96.1.27일 이전 △전형방법= 고교
내신성적(40%) + 대학수능시험(50
%) + 대학별고사(10%) (단, 예·체
능계 제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대
학별고사는 △문제유형= 계열별 단
순주제형(단과과제형) 1문항 △시간
및 분량= 80분, 1천자(±50자) △배
점= 1백점 만점(총점의 10%)
96학년도 입시요강중 95학년도와

에 따른 후속작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칙 등 제 규정
보완 및 제도정비를 위한 실무팀을
곧 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교과과정 개편, 교수충
원 등에 있어서 학생참여 보장부분
을 논의중에 있다.

학부제실시가 결정된 지금 각 단
과대학발전위원회에서 학부제실시

차이하는 점을 살펴보면 우선 △사
울캠퍼스의 체육교육과 체력테스트
종목중 윗몸일으키기가 없어졌으며
△연극·영화학부 실기고사 배점이
종래 3백점에서 4백점으로 상향조
정 △경주캠퍼스 사회체육학과 체
력테스트 종목중 윗몸일으키기가
(+) 입자형윗몸일으키기로, 윗몸일으
키기는 배점력으로 명칭변경 되었다.
또한, 골프, 농구,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스키, 에어로
빅,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총14종목의 운동선수증 '95, '96학년
도 대학입시를 위한 국립교육평가
원의 체육특기자로 선발된자중 대
한체육회에서 발행하는 경기실적이
있는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

보리수

괴적(壞劫)

파괴되는 역사가 있다. 기존 있
었던 생명이나 공간건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 하는동안 그 생물의
기력이 떨어지고 건축의 지구력
이 쇠미하여 부서지고 파괴되는
시간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 기
간은 괴적(壞劫)이라고 한다. 유
한세계에 살고 있건, 만들어 진
모든것은 이룩되는 시기를 가진
다. 이것은 성겁(成劫)이라고 또
한 일경기간동안 유지 지속되는
중안을 주검(住劫)이라고 한다.
모든것은 무한하지 않다. 유한적
기간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사람
들은 유한적 기간에다 손질을 한
다. 무지한 소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손을 대지 않아도 파괴패
손, 급기야는 공(空)으로 돌아가
는데 헛손질을 마구 하는것이다.
불민한 소행이 아닌가. 지금 이룩
한 문화도 역사가 될 수 있다. 그
러나 지금의 것을 누가 역사적
문화라고 하고 전통이 스며진 유
적문화라고 부르게 되는가. 시간
의 나이라, 시대의 증후, 역사의
확신이 되면 오랜 문화라고 한다.
문화속에 역사가 함축되고 있는
것은 고풍한 것이요 민족의 긍지
가 생긋게 된다. 그러나 그 역사가
파괴되고 문화가 훼손된다면
민족의 면목이 무엇인가.
신라천년문화는 유구한것이다.

또한 지금부터 역산하여도 천년
전의 문물이 아닌가. 그러나 2천
년전부터 삼국시대 사람들은 사
상에 응급한 모든것들을 나무에
새기고 돌을 조각, 옥을 조각, 쇠
를 담금질 하면서 찬란한 문화에
생, 생활필수품, 석탑, 조각, 건축
들을 만들어 쓰임새있는 종류와
주거를 화합하였다. 이것은 문화
민족의 자랑이다. 이제로서 우리
들은 잘 가꾸어 꾸며 보살피는
마음을 앞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학부관을 가로 질러가는
경부고속철도를 시설한다하니 하
나는 편리하듯 모르나 역사를 실
종시키는 문화의 파괴범이 되려
고 하니 어이없다.
다음 세대에 태어난 생명들이
역사를 배울때 무엇을 주제로 삼
을것인가. 역사와 문화는 민족모
두가 공유하여야 할 정신세계의
유산이다. 사람의 힘으로 파괴
역사를 앞받지 아니하여도 괴
적은 오고 있다. 역사의 긴 목록
을 헤아리는 실증적 안목을 길러
야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현존인이여 경주를 살리는 역사
를 보존하는 문화인이 되면 어디
별들곳이 있는가, 자정하여 보야
야 할 것이다.

목적배

블로그대학 블로그학과 교수

대학원 2백80명 증원

본교 '96학년도 대학원 정원이 2
백80명 증원된다.
대학원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정부
와 학교정책에 따라 작년의 95명
에 비해 대폭 증원될 수리나 증원현황
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원은 석사과
정 1백23명, 박사과정 78명이 증원
되었고 전문대학원에서는 환경예술
학과와 건축문화학과 문화예술대
학원에 신설된 총 79명이 늘어났으
며 각 계열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과계열= 석사55(박사20) △
이학계열= 38(22) △예체능계열= 5
(4) △사회과학계열= 20(23) △자연
계열= 15(19) △문화예술대학원= 30
△정보산업대학원= 25 △산업기

슬대학원=24.

교수동정

▲김한(영문학) = '한국에서의 세
익스피어 연구(1945~1989)'를 오는
27일 한국 영어영문학회 가을학술
발표회에서 발표.
▲김영민(영문학) = 'Heidegger's
Pestructive poetics and Modern
poetry'를 한국 영어영문학회 가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
▲최은민(컴퓨터공학) = 'C++ 원
서코드 분석을 통한 객체지향모델
추출에 관한 연구' 발표자 오는28일
한국정보과학회 추계 추계학술발표
회 참가

본사

- ◇ 입수습
 - ▲최승일(블로그대 인철1)
 - ▲고지은(사회대 사회1)
 - ▲양지연(사회대 사회1)
 - ▲한누리(생자대 식물자원1)
 - ▲이영구(공과대 전자공1)
 - ▲박민진(사범대 역교1)
 - ▲김상만(야간강좌 신방1)
 - ▲이태훈(야간강좌 신방1)

시령

- ▲김하연(인문대 국문1)
- ▲서상훈(인문대 국사1)
- ▲이성용(인문대 고미사1) (이상 10월 16일자)
- ◇ 의원면직
 - ▲양수정(통계3) 사회부장
 - ▲백도나(사2) 사회차장 겸 사정차장
 - ▲김은혜(지교2) 문화차장 (이상 10월 9일자)

우리의 정신은
육체보다
무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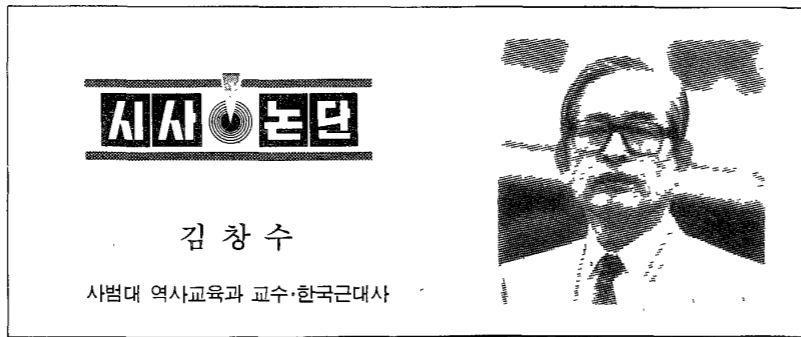
동대신문사

캠퍼스 저만치 서있는 감나무에
탐스럽게 감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실하게 잘 익은 열매들은
무겁게 가지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색과 교양과 학문의 성숙을 위해
과연 몇권의 책과 씨름을 하였습니까.
도서관 9월 한달 대출권수 1만6천3백여권,
1인당 평균 2권에도 못 미치는 대출량입니다.
달라있는 무거운 책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열린 책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큼 도서관으로 다가설 때
우리의 정신은 비로소 빛나게 됩니다.

일본의 망언을 규탄한다

한국침략 책임회피...반성의 여지 안보여

또다시 일본정치지도자들의 망언(妄言) 파문이 일파(一波) 만파(萬波)로 확산되고 있다. 얼마전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침략전쟁' 또는 '한일합방의 정당성' 주장등, 망언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일합방이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일본총리의 망언이 발생되어 한일간에 일고 있는 격랑의 파고가 높게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여 고노 요헤이(小野洋子)일본외상이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은 망언을 뛰어 넘어 우리를 여러중첩하게 한다.



김창수
서범대 역사교육과 교수·한국근대사

아마총리는, '한일합방조약이 형식적으로 존재했다'는 기묘한 해명을 하고 나섰다. 물론 이러한 발언은 일본정치지도층에 형성되어 있는 한국인식에 대한 기류의 일단을 대변하여 발생했것일수도 있었으나 일본국내에서 가장 진보주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회당출신의 총리의 발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한일합방은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해피한 책자를 일본의 연립여당의 제1당인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가 소속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당시의 화난(禍難)은 조선에 원인이 있고 이를 벌인 나라를 병합했다'고 하여 한일합방의 침략책임을 왜곡, 회피하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이 원인무효라는 것은 1992년 5월 '경각각소장문서중에서 발견된 '을사조약'과 '정미7조약'의 원본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곧 이에 따르면 이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수결(手決, 서명)이 없고 육새 인인이 거부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국왕의 위임장과 날인 또한 없으므로 서명은 뒤에 일본측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 확인된바

있다. 이 사실은 당시의 황성신문의 기사에 의해서도 재확인된다. 따라서 이 조약이 가지는 합법성을 보증하는 초보적인 수순(手續) 및 형식을 거치지 않고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허위문서이기 때문에 1910년의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의 역사적, 법률적근거 및 전제를 이들 조약에 구애는 일본측의 강변의 기반이 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한일합방조약'은 그 스스로가 국제법상 원초부대의 원인 무효가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학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한 '합방조약'이 엄연한 역사적사실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했다든가, '대통령등한상대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등의 일본정치지도자들의 발설은 침략자의 변명치고는 너무나 표리부동하고 반성의 여지가 추호도 보이지 않는 주장이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책임을 회피하는 언동에 대하여 기뻐할 때마다 독일의 전후처리문제를 예로 들며 경고한바 있다.

때마침 우리 정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한일정상회담도 취소하고 일본정치지도자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언어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남북분단의 책임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있다는 김대통령의 언급에 대하여 고노일본 외상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 직접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 우리 정부 당국은 강경한 입장의 형의와 더불어 이후의 대응책의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국회에서조차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특약(勸約)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일합방조약'이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을사조약', '정미7조약'등도 포함되어 원천적무효의 조약이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국회결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채택한 것이므로 국민의 여론이 수렴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적결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인식을 의미하고 역사를 흐도하고 왜곡하고 있는 일본정치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우리국민들의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한국침략의 책임을 회피해 왔고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도 양심있는 학자,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한국침략자의 손을 잡고 '일본에 대한 침략책임'을 회피하는 모임이 1990년 결성되어 4·5차례 걸쳐 한·일간을 오가며 세미나를 열어 일본의 침략책임을 추궁하면서 '한일기본조약'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마침 이회회의 필자가 한국측대표로 회의를 추진한 바 있는데 10월16일 우리 국회의 결의로 '한일기본조약'의 개정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접하면서 새삼 감회가 새 로워진다.

사설

강경대응으로 다시는 망발없길

일본총리의 망언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일본측의 망언은 일과성의 실수라기보다 역사인식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에 이어 자민당 지도부는 '한일합방은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책자를 소속위원에게 나눠주었다. 이후 김영삼대통령의 분단책임발언에 대해 분단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말로 회피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망언은 처음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와타나베외상의 "한일합방이 원만하게 이뤄졌고 합법적이었다"는 발언에서 한걸음 나아가간 것이다.

올해들어 일본내 보수적인 흐름이 짙어지고 망언이 계속되는 것은 저변에 정치적인 의도를 전제한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은 실질적인 군사력증가는 물론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덮어줌으로써 도덕적인 죄책감을 극복,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만들고자 함이다. 최근 극동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미·일안보협력의 지역범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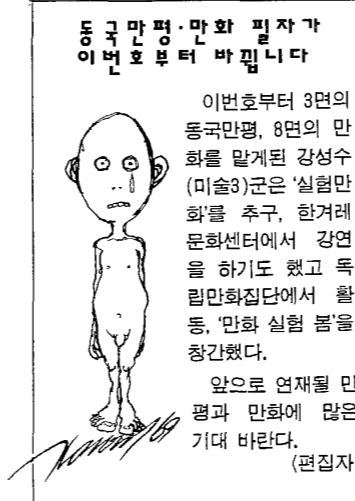
아사히 신문도 '합방조약의 비도덕성, 강압적 경위등 많은 부당성에 눈을 뜨고 있는 안된다'고 일정부에 촉구하고있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민주개혁을 위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분단의 책임 또한 명백하다. 우리는 일본에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겠다는 목적이나 나라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지난16일 정기국회에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정부의 대응 또한 어느때보다 강경하다. 한·일 정상회담을 취소한데 이어 고노요헤이 외무장관의 방한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일의연맹 정기총회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일본측의 형식적 사과보다 한일합방 원천무효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명확히 해야겠다. 더불어 북·일수교를 문제삼는 듯한 인상은 없애는 한편, 정확한 역사인식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 여타의 호사까지 시간을 동원하여 사안을 흐려서는 안되는 것인바, '5·18'등 현안문제를 희석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겠다.

한편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정확히 하고 하루키교수도 제기했듯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압 체결된 한일합방조약은 어떤 의미로도 합법화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할 것이다.

강경대응으로 이번문제를 매듭짓지않는다면 앞으로 더 강도높은 망언은 계속될 것이다. 당장의 사과나 '유감'표현보다는 '망언'을 낚개한 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중국만평



◆민주노동당

노조의 자주화·민주화 강화 '근로자 파견법'제정저지 투쟁 전개

민주노동당 출범이 20여일 앞두고 있다. 오는 11월11일 창립대의원대회와 12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소속된 노조원, 간부 등 수백여 19명에 대한 일제 검거에 나서 노동계와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한총련 주최로 민주노동당 출범이동봉세를 통해 민주노동 준비상황과 방향을 들어보았다. (권집자)

-민주노동당의 구성은 =원칙은 산업별노동조합으로 구성하되 산업별노동조합이 가입하지않은 단위노동조합 지역또는 그룹조직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노동조합에 가

입할 때까지 민노총에 가맹할 수 있다. 현총련은 1년안에 산업별로 갈 것이다. 현재 대학, 병원, 언론 등 7천여개 사업장 1백65만 노동자 중 40만여명이 가입했다. 창립당시 조합원수는 최소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가입조직들은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고민이 힘들었다. 조직적으로 받쳐준 상황이었다. 조직율이 낮은 것은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이 부정되어 있고 1백명미만 사업체인 중소기업이 5백만이 넘는다는데 있다. 영세기업의 조직화를 시도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노동조합운동표현도 하

지 않을 것이다. 노조의 자주화·민주화에 강화를 주력하겠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계 정치선언이 10월말 11월초 있을 예정이라고 우리는 일정할 정치적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27일 경 정치세력화에 대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 방도는 창립대회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상반기 사회개혁투쟁의 평가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향상과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 서 시작됐다. 그동안 국민적 현안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내부적 반성을 했다. 연례적 투쟁방식을 단호히 벗어났다. 일부의에도 사회복지개선 대정부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앞으로 중점 투쟁과제는 =사실 '5·18문제'에 역량을 배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단위노동조합 '특별법 제정'서명등으로 진행했다. 출범이후 '근로자파견법'제정저지에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그문제는 현재 고용된 노동자보다 앞으로 취업하게 될 여러분에게 더 심각한 문제다.

-한국노동과의 관계는 =보수언론에서는 '노동계의 분열'이라고 비판하나 민주노동당건설은 '재편'이자 '분열'은 아니다. 한국노동과 공동투쟁을 제안할 것이나 통합은 받지 않는다. 두개의 노총이 병존할 것 같다.

-합법화 문제가 남아있는데 =창립대회이후 노동부에 설립신청을 할것인데 반대로 것으로 예상돼 공방전이 있을 것 같다. 합법화의 의미는 3개월간금지 조항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준비 문제는 낙관하고 있다. 법제정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비난은 거세다. 마냥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노동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미지적으로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창립대회가 노동자만의 단결의 장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으로 함께 참여해 전국민적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건설자금모금도 참여 해주길 바란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을 앞으로 취업을 하게될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느끼고 투쟁을 전개하길 바란다. (사회부)

고속철도 경주 통과에 대한 우리의 견해

문화는 인간의 역사와 그 안에서 이룩한 정신활동의 총체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문화는 곧 그 나라 국민의 삶의 내용과 가치의식을 가능케하는 척도가 된다.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논할때 우리의 고도 경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경주야말로 신라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민족 자존의 땅이며, 고대문화의 보고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인 경주를 더욱 아름다운 문화고도로 가꾸어야 하고 또 새로운 차원의 미래도시로 발전시켜야할 당위를 확인한다.

이에, 작금 세인에 의해 회자되고 있는 고속철도 경주 통과에 대한 동국대학교 불자 교수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내외에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문화유적의 보호와 도시발전의 양면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경부고속철도는 21세기를 지향하는 민족의 대동맥이다. 이것이 경주를 통과하는 일은, 세계적 문화고도로서의 위상이나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인다. 그러나 노선의 선정에 있어서는 문화유적의 보호와 도시발전이라는 두가지 목적이 반드시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2. 민족문화의 성지인 남산의 경관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당초부터 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민의의 수렴절차도 없이 실시실계를 진행해온 시내통과 노선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주장하는 안에 따라 역사건설 및 역사권이 개발될 경우 문화유적의 황폐화는 물론 민족문화의 성지인 남산의 경관이 일제히 치명적 손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3. 문화유적 보호와 미래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천-화천방면 우회노선이 최상이다. 공정의 차질과 예산손실 등이 시내통과 노선 강행의 구실이 될수는 없다. 잘못이 밝혀졌다면 주저할 없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건천-화천방면으로 통과하는 우회노선으로의 변경 뿐이다. 또한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현 철로를 철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단축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물론 운행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의 절감 등 지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제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다. 경주시민이나 우리민족만의 문화유산에서 그치지 않는다. 또 경주는 경주다올때 그 존재가치가 있다. 그것이 곧 경주의 자존심과 민족의 정기를 지키는 일이며,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일제의 만행에 의해 모욕당하고 지뒀던 민족의 문화유산들이 이제 다시 천년고도 경주에서 우리의 손에 의해 파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는 반드시 시외곽을 통과하는 위와 같은 우회노선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1995. 10. 11

동국대학교 불자교수회

민주노동당 창립 축하 대공연

우리 큰 걸음으로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칠천만 민중의 미래를 개척할 민주노동 창립에 큰 힘이 됩니다."

연출: 박인배
출연진: 꽃다지, 노찾사, 노래선언, 천지인, 조국과청춘, 서대노협, 안치환, 김애영, 김영남, 류금신, 백창우, 노동조합노래패(한국통신, 대우자동차, 지하철, 병노련, KBS) 풍물패 터울림, 춤패
특별출연: 김선명 선생, 정태춘 · 박은옥(29일)

일시: 1995년 10월 28일(토)/29일(일) 17:00시
장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문의처: 326-1275/743-5872 ~ 3

주최: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후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협찬: 월간 말

'정부정책변화' 고려해 스테그플레이션 설명

루카스교수의 합리적 기대이론에 관한 소개

루카스교수는 그동안 경제적 방법론의 주류를 형성해 온 '적응적 기대 가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합리적 기대 가설'을 발표해 95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경제학의 혁명을 이룩한 그의 이론은 케인즈 모델이 제시하는 단순한 정책들의 한계를 간파하고 정부의 정책변동, 이에 대한 국민들의 능동적인 반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카고대에서 루카스교수에게 수학한 송병호교수를 통해 그의 이론을 살펴본다.

송병호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

루카스(Lucas)교수가 95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관해 논문 지도를 받은 시카고 대학 출신의 한 경제학도로서 매우 기뻐했다. 이로서 시카고 대학은 8명의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역대에 수상한 기록을 보유한 학교가 되었으며 이 기록은 단일 학교로서 4명 이상의 수상자를 배출한 곳이 전세계에서 시카고대학 이외에는 없다는 점으로 보아 오랫동안 깨어지지 할드라 예측된다.

루카스교수가 경제학 전반에 걸쳐 이룩한 업적을 여기서 소개하기란 불가능하므로, 필자는 이 자리에서 메스컴에서 많이 언급한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에 대하여만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독자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일간지에서 간단히 소개한 합리적 기대가설 기사를 읽고, 기대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을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론을 루카스교수가 전개하였다고 생각하면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때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자들이 과거에 경제모형을 만들 때 이 당연한 가설을 쓰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경제모형 속에 넣어서 그 모형의 균형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테크닉이 그전에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테크닉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존머드(John Muth)라는 경제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거시경제학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그 이상의 연구업적이 없었고 따라서 경제학자들에게 잊혀져 갔다. 루카스교수는 반대로 머드의 논문을 보고, 이 테크닉이 거시경제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깨닫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출간한 논문을 통하여 "합리적 기대가설 혁명"을 이룩한 것이다.

합리적 기대 가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

기 위하여는 이 가설이 나오기 전까지 이용되었던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적응적 기대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조합하여 미래예측을 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 5년동안의 매년 인플레이션율을 가 평균하여 이 평균을 내년의 예측인플레이션율로 삼는 식의 미래예측을 말한다. 지난 5년간 매년 15%의 인플레이션율이 관찰되었으면 내년의 인플레이션은 15%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_{t+1} = \beta X_t + \beta X_{t-1} + \beta X_{t-2} + \dots + \beta X_{t-n}$ 가 된다. 여기서 X_t 는 다음기(내년)의 예측이고, X, X_{-1}, \dots, X_{-n} 들은 현재와 과거에 실현되었던 값들을 말하며, 그 앞에 곱해진 β 들은 가중치를 말한다. 합리적 기대가설이 나오기 전에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경제모형 내에서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미래예측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모형의 균형을 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적응적 기대모형에서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 변화를 미래에 가져올 것이라는 정보가 전혀 이용되지 못한다. 즉 위의 식에서 X_t 를 도출하는 주변에 정부의 정책 변화라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국민은 수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결과가 나오며, 이를 역으로 말하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경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고려없이 수립해도 그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합리적 기대가설을 쓴 경제모형에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예측을 한다고 가정하여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_{t+1} = E_t(X_{t+1} | I_t)$ 이다. 여기서 X_{t+1} 의 의미는 적응적 기대에서의 X_{t+1} 와 같고, E_t 는 내년에 여러가지 값을 가질 수 있고 그 값들에 확률이 붙어 있는 확률변수이며, I_t 는 현재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나타내는 개념의 시그마 알지브라(algebra)이다. 이 시그마 알지브라에는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즉 앞의 적응적 기대와 달리 정부의 정책 변화도 미래예측 X_{t+1} 에 이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일종의 효과를 바라고 정책을 수립해도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가장 좋은 예가 스테그플레이션(stagnation) 현상이다. 이는 경기침체를 말하는 스테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합리적 기대이론이 나오기 전의 경제학에 의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화폐공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만 경기가 부양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즉 정부가 통화 정책을 통하여 경기부양의 효과를 얻는다는 결론이다.

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 루카스교수. 그의 합리적 기대이론은 일반인들의 경제활동을 분석·이해함으로써 기존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해 준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가설을 쓴 경제모형에서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기대를 하면서 정부의 통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 이 현상이 가능하며 따라서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만 유발시키지 경기부양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은 70년대 이후에 세계경제에서 많이 관찰되었으므로 과거의 경제학이 설명 못하던 것을 루카스교수가 합리적 기대이론으로 설명한 것이다.

합리적 기대가설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에서 보듯이 이를 이용한 모형의 균형을 푸는 것은 적응적 기대모형보다 높은 차원의 수학을 요구한다. 또한 [E]는 경제 모형 자체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즉 경제학자가 만든 모형 속에 존재하는 경제주체가 그 경제학자가 만든 모형 자체를 이해하고 경제학자와 같이 균형을 풀어서 구할 줄 안다는 가정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합리적 기대가설이 처음 나왔을 때, 경제학자들 사이에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대한 논란은 그후 합리적 기대가설에 대한 이해부족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밝혀져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여기서 독자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합리적 기대가 미래예측을 1백% 맞게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다. 다만 계속해서 일관되게 빗나가는 예측을 하면 이것은 합리적 기대라고 볼 수가 없다. 적응적 기대를 쓴 경제 모형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으니 바로 그

모형 속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일관되게 빗나가는 예측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를 수정한 것이 합리적 기대이론인 것이다.

또하나 독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루카스교수는 합리적 기대가설에다가 시장 기능의 완전성이라는 가정을 결합하여 여러가지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까지 내고 있으나, 합리적 기대가설을 받아들여서 정부정책의 효과를 인정하는 이론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 기대가설은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가설을 쓴 경제이론은 배척되지만, 이와 결합되어 쓰이는 다른 가정들, 예를 들어 가격의 시장조정 능력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학자들을 새 케인즈학파(New Keynesians)라고 부르며 이들이 루카스교수를 위시한 키고학파들의 또다른 명칭인 새 고전학파(New Classical Economists)와 대비된다. 그러나정부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론을 내어놓는 새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도 옛날의 케인즈모형에서 제시하는 단순한 정책들은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합리적 기대이론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 지침을 준 이론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활동을 분석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경제학자들에게 기존의 분석에 큰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여 준 이론이다.

◇ 안중근 의사 재조명

서교수, 역사적의미 잘못 해석 지적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큰물줄기 봐야

해방 50주년, 여전히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망언을 계속하고 있어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과연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오는 26일은 1909년 안중근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히로부미를 사살로 응징한 의거일이다. 일본에선 현재까지도 안의사를 암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안의사 스스로도 의병이라 표현했듯이 역사적 애국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안중근 의사가 거사전에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국제보상운동을 전개했으며,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안중근의사의 활동뒤에 안의사의 사상과 그배경을 이해하지 못한채 교과서 속의 한 기념비적인 인물로만 기억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근자에 학계 일부에서 안의사의 의거가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당시에도 다수가 안의사의 이토히로부미사살은 일제 식민지정착의 야욕에 감격하게 대응한 상징적의미로 파악하였고, 나아가서 세계안방에 제국주의의 침탈을 거부하는 민족자존의 패기라는 역사적 평가에 동의한다.

식민지정착의 원흉인 이토히로부미를

적절한 안의사의 행동 뒤에 또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안의사는 죽기전까지 감옥에서 '동양명화론'을 집필하였다. 이렇듯 안의사의 의거는 동양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안의사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연구가 몇몇 관심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점차 관심의 권역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금번 안의사를 연구하는 연변 조선족역사학회의 서명훈씨가 발표한 글을 보면 안의사의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 10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의사가 외전 구호가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코레아우라'라고 했으며 인도된 곳도 일본현병대가 아니라 일본총영사였다든 점 등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신재(국사학)교수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나 작은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덧붙여 "안중근의사와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도 교육의 역할"이라고 현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안의사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보며 을바른 역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2, 제3의 안중근의사를 떠올려 본다.

(이현주 기자)

동양문

당위와 현실

강의실A, "교수님, 다다음주 시험인데 시험공부할 시간은 주셔야죠. 다음주 수업 휴강해요, 네" 강의실B, "시험은 다다음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주는 도서관 가서 시험공부하세요"

중간고사가 한창인 요즘 강의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언제부터인지 학생들은 시험 바로전 수업은 시험공부를 위해 휴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또 몇몇 교수들마저 이런 생각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교수 스스로 자진 휴강시키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에서 휴강은 어찌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오래된만큼이나 휴강이유 또한 다양하다. 소위 휴일과 휴일사이의 샌드위치대이는 물론이고 과목중 등의 행사, 학년M.T, 연합M.T, 수학여행, 명절등등 휴강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로인해 학기당 16주로 규정된 수

업은 13-14주정도로 줄어들고 교재하나 끝내기도 벅하게 된다. 또 학기초 수강 정점으로 인한 수업진행의 어려움, 특히 야간강좌에서 빈번한 과격적인 단속수업, 조기종강 등도 실제 수업시간장소에 휴강 못지 않은 영향을 준다.

실제로 00학과 2학년생은 "대부분 교양과목은 교재를 다 배우지도 못하고 교양계획서의 진도조차 못 나간다"며 "다 배우지도 못 할걸"이란 생각에 교재 구입조차 아까울때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8월18일 열린 95년도 2학기 학사보고회에서 교무처는 강의휴강, 단속수업, 지각출강, 조기종강 금지를 당부했으나 지금의 모습은 언제나 그랬듯이 "맞는 것이니까 그걸야할 것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쯤에서 지금 우리의 수업문화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대용 기자)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③케임브리지 대학




프랜시스 베이컨
경험은 창시로 18세기 과학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




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발견등 18세기 근대과학혁명의 집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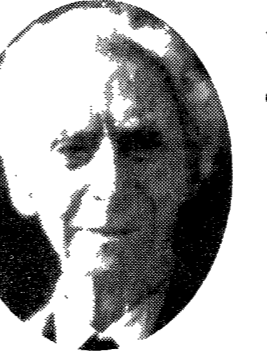
함스 디윈
진화론으로 20세기의 세계관, 종교관, 과학관에 일대변혁을 가함



존 케인즈
수정자본주의를 제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실업 해결의 방안제시



미후타마 간디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제창하고, 인도독립을 이끌어낸 20세기의 성자



버틀랜드 러셀
논리학자이자 철학자로서 핵무장반대운동 등을 펼친 노벨상 수상자

근대 인류문명을 이끈 케임브리지 대학의 원동력- 전통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끝없는 자기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세계의 문명사를 변화시켜온 시대의 거인들을 길러낸 케임브리지대학- 이는 700여년을 이어온 빛나는 전통을 갖고 닦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끝없는 자기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전통을 더해감으로써 인류사의 주인공이 되어온 케임브리지의 대학인, 켄타브리안들- 21세기를 맞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공보처

내가 세계일류면 나라가 세계일류

학부제 운영 어떻게 되나

전공선택이 관건

내년도 본교 입시요강이 확정됐다. 뜨거운 감자인 '학부제'를 도입해 19개 학부(52개 전공), 2개 계열(8개 학과), 28개 학과로 통합 개편돼 총 4천8백8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학부모집은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96학년도 대입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힐만큼 전국 1백45개 4년제 대학중 총 64개대에서 실시된다.

학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복수전공제의 도입 △전공이수학점의 하향조정 △졸업이수학점의 하향조정 등 학칙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점이 있어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본교가 처음으로 이 내용들을 골자로 한 교육제도 개편안을 지난 6월에 발표하고 교육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타교보다 좋은 여건에 있다고 말한다.

본교는 '96학년도부터 전공최저이수학점을 졸업학점의 4분의 1수준으로 조정하여 2개이상의 복수전공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전공필수를 폐지하고 최고 36학점인 교양필수를 10학점으로 축소하는 교육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본교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형태는 학부와 계열과 학과가 함께 나타나 있다. 각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학부는 유사, 동일학문 분야를 통합 선발하여 2학년2학기 이후 수강지도교수의 지도와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다. △계열은 소계열별로 학문분야를 통합하여 선발하며 학문의 성격에 따라 3학년 1학기시 학과를 선택, 배정하게 된다. △학과는 기존의 형태로서 독립된 학문영역을 학과 단위로 선발하는 것이다.

학부제 운영 방안으로 학교당국은 △학과를 '전공'의 형태로 반영하고 △교육과정을 학부단위로 운영하며 △학부에는 현행 학사행정 책임자인 '학부장'을 둔다. 또한 '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6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9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재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다.

학생들은 학부제의 실시에 따라 △학과·전공별로 독특한 전문성과 독자성을 더 이상 넓히지 못하고 △학원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강의 △인기 전공을 위한 경쟁 심리 팽배 △교수부족 △학생회 체계의 혼란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전공별 제한 인원을 정하기는 쉬우나 학문을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어긋나거나 또 언제 어느 전공이 인기일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에서 단기적 대안으로 전공별 일정인원을 배정하고 학급수강인원의 상한을 정하여 놓고 있다.

또한 기존의 형식화된 지도교수제를 수강지도교수제로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학칙 등 제 규정보완 및 제도정비등은 단계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이번주내로 실무팀이 꾸려져 실무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곽주영 기자)

◇학부제 성패 후속보원에 달려있다

단대별 발전위 통해 구체방안 강구해야

내년부터 본교의 학부제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학부제 실시'논란으로 뜨거웠던 학내가 어느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학부제 실시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각 단과대학 발전위원회에서 학부제 실시에 따른 보완책 논의를 11월까지 계속적으로 할 것을 당부한 상태이다. 학부제에 관한 의견과 현 단과대학이 학부와 계열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목소리들을 서울캠퍼스의 각 단과별로 종합해 본다.

블교대학

블교대학에서는 오랫동안 대학원 중심 대학에 대해 준비해 왔고 불교, 인철, 선학과가 학문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로 학부제의 필요성이 다른 단과대에 비해 컸다는 의견이 교수들 사이에서 객관화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 교육의 미흡, 단과대보다 부족한 정원인 별 준비없이 대학원 중심을 위한 학부제 실시는 혼란만 초래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학생회측은 주제적으로 불교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제하기 위해 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노력할것이라고 하며 '불교대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참여를 보장받아 학부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할것이라고 밝혔다.

문과대학

각 학과별로 미처 특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제 통합되어 국민윤리학과가 철학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국민윤리

학과는 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이전부터 사회윤리학과등으로 과명개칭을 연구 중이었다고 한다. 교과과정개편, 교수출원 등이 실시이후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학생회는 이런 부분에서 학생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과대학

학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컴퓨터 사용등을 공적으로 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몇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기자제 구입비용이 각 과별로 지급되지 않고 하나로 처리되어 훨씬 좋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과대학이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학원생과 교수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학부제를 실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확실한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과대학

이번 학부제 시행에서 법대는 제외됐다. 법과대학에서는 학부제 자체의 실시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보였다. 학부제를 실시할 여건-커리, 교수출원문제-이 충족되면 마땅치 않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학생과 교수 학교의 다자간 논의와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단과대가 전공학과로서의 특징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교육환경의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과 대학은 이번 학부제개편보다 법대학제 개편으로 두된 로스쿨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법과

대 자체 내에서도 평평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로스쿨 제도는 백지화 되고 말았지만 이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대는 경찰행정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가 계열별모집을 하게 된다. 계열화 이후 우려되는 것은 사회정의 같은 경우 어느정도 유사성이 있지만 행정학과는 특수해 계열별로 모집하기에는 무리로 본다. 개정된 커리의 내용도 자칫 잘못하면 학문적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을뿐 아니라 전필을 전공으로 돌리고 전선으로 바꾸었을뿐 달라진게 없다며 신규과목을 더 늘려야 한다.

일부 교수들도 전공 선택기준이 모호해 우려가 되며 기초교양을 강화해 이수학점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을듯 하다고 한다.

경상대학

학부제 실시로 인해 '경제학원론'같은 기초과목의 경우 복수과목으로 인해 교수간의 경쟁심 향상, 학생은 선택의 폭 증가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소속감 감소, 교수사실 축소, 교과과정등이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경상대학 발전위원회에서 구상중인 경상대의 모습은 경상대학내에 경상대 학부, 전문대학원, 경영, 경제 연구소 등을 두는것이다.

생명자원과학대학

학교측의 학부제 시행강행에 유감을 표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학부에서 제외된 생명자원경제학과는 학부제 실시

기원학사 건물 '조마조마' 노후 심각...개보수 시급

'1969년 성북구 안양동(개운사 옆)에 기원학사 준공. 속실 24실, 수용 가능인원 70명, 현 인원 57명'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존재가치를 상실한 본교 기원학사의 내역이다.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제문제 속에서도 커다란 무리없이 운영되어 오던 기원학사가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로 조속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기원학생들의 주장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생장 강동원(불교4)군은 "건물 가운데 대부분의 지반이 침하해 건물의 양끝이 가운데쪽으로 쏠리고 있어 언제 무너질지 불안하다"며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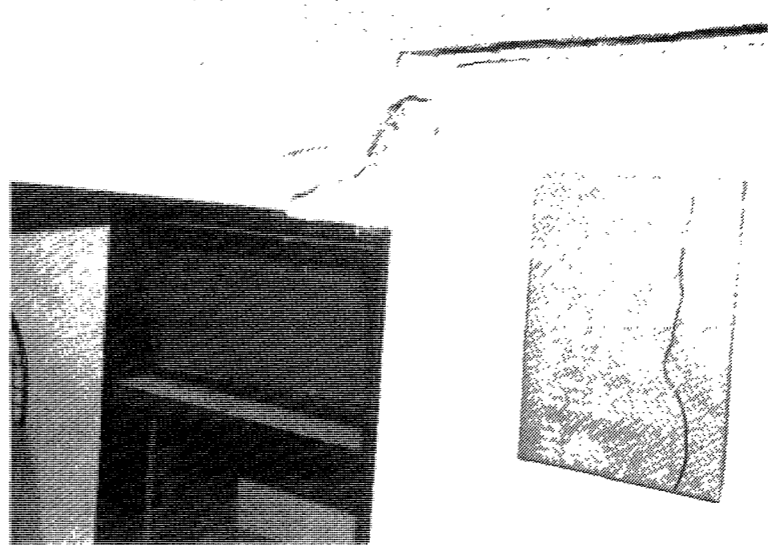
실제로 건물 내·외부에는 전체적으로 균열이 나갔고 심한곳은 방사선의 벽이 갈라져 벽을 통해 건너편 방의 내부가 보일 정도다. 가운데 위치한 5호실은 천정이 내려앉아 문이 닫히지 않고 있다. 또 방

사이를 가로 지르는 복도의 가라앉은 상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학교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 "지난 18일 관련직원이 현지답사한 결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번 주중 이문보, 김규석 두 건축과 교수가 현지답사해 좀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기원학생은 매우 격앙된 어조로 "학교측은 어린이 발달 못 우리들 실력 시키려 하고 있다"며 "당장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학교측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작년에는 기원사주임교수가 학교측에 건의한 기원학사 재건업안이 묵살 당했다는 사실도 전해진다.

학교측의 입장에서 볼 때, 기원학사는 개운사 소유부지내에 위치해 있어 지금까지 갈라져 벽을 통해 건너편 방의 내부가 보일 정도다. 가운데 위치한 5호실은 천정이 내려앉아 문이 닫히지 않고 있다. 또 방



◇천정이 내려앉아 문이 닫히지 않는 기원학사의 제5호실 방은 곳곳에 균열이 있다.

지난 삼풍백화점붕괴로 건물의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이번 기원학사의 안전도 문제는 가법적 불사안이 아니다. 혹, 학교측의 미온적 태도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에따라 실추될 학교의 명예는 다시 되

돌릴 수 없다. 학교당국을 비롯한 전 동국인의 공관대가 필요하다. 기원학사의 조속한 안전정밀진단과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희동 기자)

뜻깊은만필

가을하늘



김택근

가을 하늘은 타없이 맑다. 푸게 물든 산, 참으로 경이롭다. 저 자연속에 둘러져 자연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진정

이 땅에서 순리와 상식은 사라져버렸는가. 5·18, 4천억 비자금설, 세대교체. 도대체 국민을 무얼로 알고 있는가. 진실은 집단이익을 위해 핏겨쳐 버려지고 있는가. 민심이 곧 관심이라는 말은 너무 진부해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가.

말실을 벗어날 수 없는 정치, 정의의 세우기 보다는 적당히 저물음을 속이는 법집행, 권위와 믿음을 상실한채 그 속살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정책, 모순적 '이겨야 된다'는 정당들의 야욕.

도대체 여백이 없다. 이기고 지는 정글의 법칙만이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속칭 실력자) 무슨 말을 하면 그 배경이 어떤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해설만이 가득한 세상. 논리는 논리관을 넣는 법이다.

여기에 비하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성숙해 있다. 모두들 자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 사려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도 정부, 정당, 국회, 사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아니 발바닥으로 만민을 짓밟고 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일단 언론이 흥분한다. 그러다들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줬다고 다짐한다. 그후엔 정당들이 끼어들고, 끝내 최고위층의 결단을 기다리고 그러다 잠잠해진다. 세상은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도대체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거듭할 것인가.

왜 순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정의는 계속 정치권의 이해에 묻히며, 진실은 세인들의 입을 통해 낱살로 떠오르는가.

또다시 비자금 4천억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해야 가장 무난히 처리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또다시 '적당히' 넘어갈 것이다. 이 무슨 국력남비인가. 서민들은 치솟는 분노를 슬로 달랠 것이고,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 무슨 비극인가. 법과 정의를 일으켜 세우라, 저 타없이 맑은 가을하늘이 부끄럽지 않은가. 저 자연이 주는 무언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는가. 철따라 인간에게 변함없이 다가오는 저 거대한 자연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우리 모두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편집기자회 회장



초소형 고성능 노트북 - '솔로' 하나면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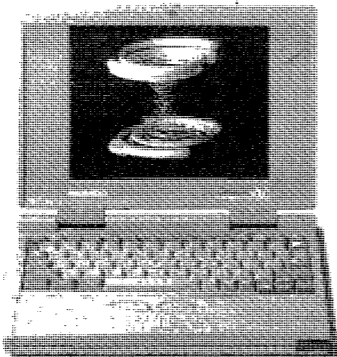
무거운 노트북, 덩치 큰 노트북은 갔다. 타임지보다 작은 초소형 솔로가 왔다. 성능을 의심받던 노트북들은 사라졌다. 이제, 미국 산타클라라 노트북 연구소에서 세계 최고의 노트북 전문가들이 만든 고성능 솔로가 탄생했다. 휴대는 더욱 간편하고, 성능은 더욱 탁월해졌다. 정보화 세대의 캠퍼스 필수품, 솔로.

- 초소형 고성능 노트북 '솔로'의 고성능과 다기능
 - 26.1 x 19.3 x 3.8cm, 1.8kg • Video 1MB • HDD 540MB • FDD 3.5" x 1개
 - 16비트 사운드 카드와 콘센서 미크로, 스피커, 헤드폰용 내장용 녹음, 재생 기능 • 포인팅 스틱 방식 (G-H-B Location) • 4~6시간 사용 대용량 NiMH 배터리
 - 8.4TFT 방식 LCD • Sound Blaster 호환 • 무선외선(SIR) 통신 기능 • 간편한 업그레이드 멀티미디어 확장 기능



초소형 고성능 노트북 솔로

타임지보다 더 커야 내용이 충실한 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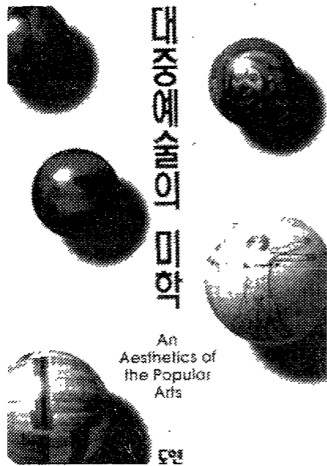


■ 모델명 (CPC-7400T) • CPU Intel 486DX4-75MHz • Memory 718KB 2MB 20MB
 ■ 기본배터리 • 4000mAh NiMH • 전원 Window 3.1" • 3.5" 플로피 디스크 • 486 호환 멀티미디어



I.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인 토머스 피셔는 문화비평가인 프래드릭 제임슨은 현시대의 저속한 자본주의 문화를 '대중주의(populism)'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가 만든 신조어인 '대중주의'라는 용어는 전시대의 모더니즘 문화가 지니고 있었던 고전적인 예술에 대한 취향과 귀족주의적 미학에 대한 대중적인 반발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발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의미없음'이라는 내용까지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없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중주의' 문화는 현대사회의 자본의 논리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선택의 여과없이 방영되는 연속극과 영화, 그리고 각종 쇼 프로그램과 코미디는 물론이고 각종 일간지와 주간지에 등장하는 선정적이고 환상적인 다양한 서사(narrative)적 글들은 소비와 생산의 양 측면에서 대중주의 문화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서구사회의 중세시대에 행했던 모든 문화가 그 시대를 살았던 인간의 논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보이기도 않고 실재도 없는 신의 논리를 따랐듯이 현대 '대중주의'라는 문화의 논리는 보이지도 않고 실재(?)도 없는 자본의 논리나 시장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문화의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굳이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구매의연한 휴머니즘의 한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직했던 여러 문화들을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나름대로의 틀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문화의 분석 틀에 대한 기준은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와 해방의 몸짓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문화분석의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대중주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반발과 '의미없음'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궁극적인 자유와 해방의 몸짓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자유와 해방의 몸짓이 항상 진지하고 고상할 필요는 없다. 대중가수의 선정적인 춤사위를 보면서 성적 억압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몸짓을 읽을 수도 있고, 할리우드 영화의 황당무계한 상황설정과 비논리적인 이야기 구조를 보면서 기계론적 과학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자유를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분석 틀에 대한 기준이 지니고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점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향유하고 있는 '대중주의' 문화를 단순히 '시장의 논리'라거나 혹은 '의미없음'으로 치부하여 반드시 도려내야 할 '종기' 정도로 방치하는 것로부터 벗어나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평-『대중예술의 미학』

연구권 협소화·분석틀 주관화하는 오류 지너 용어 '미학·미적'의 편협한 정의... 문화적 측면 사장될 수도 있어

II. 박성봉의 『대중예술의 미학』은 미학이라는 학문적 측면에서 완전한 미개척 분야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박성봉의 책은 대중예술의 의미 영역을 논리화하려는 부분과 미적(美的)인 것에 대한 일상적 인식의 논리를 찾으려는 '미적'의 열린 이론훈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속성의 미적 분석'이라는 세계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작가의 논리화는 '대중예술'에 대해 체계적인 미학적 접근을 시도한 세계 최초의 저술이라는 다소 상업적인 광고문구를 밑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체계화나 논리화를 지향하고 있는 글들이 흔히 빠지고 있는 함정, 즉 연구대상의 범위를 협소화시키고 분석의 틀을 주관적으로 개념화시키는 오류로부터 '대중예술의 미학'의 저자 또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첫째로, 저자는 '대중문화'(Mass Culture)와 '대중예술'(Popular Art)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연구영역을 '대중예술의 의미영역'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프래드릭 제임슨이 이야기하는 '대중문화'(Popular Culture)에 대한 선례 언급이 없다. 현대 지식인의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등장한 '대중문화'를 아주 통속적(?)으로 치부하면서, '대중예술'의 부분을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은 숲은 보되 산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자의 다소 주관적인 의도는 대중예술과 대중예술, 그리고 고급예술이 미학적으로 상호 만나려는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구분하려는 저자의 의도적 잣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저자가 '대중예술'의 의미 영역을 협소시키려는 노력은 미학이라는 학문과 '미적'이라는 개념의 제한적인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저자는 미학이라는 학문을 비논리적인 정서에 대한 학문으로 맞닥뜨리며, '미적'이라는 개념을 단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인식의

개념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이러한 편협성 속에는 미학과 '미적'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사장시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속성의 미적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저자는 대중예술이 지니고 있는 통속성을 현대인의 일상적인 미적 인식으로 차환시키고 있는 동시에 통속성에 대한 미적인 것의 분석을 단지 미적 개념정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통속성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인 '웃음의 해학성, 상의 관능성, 폭력의 선정성, 동상의 환상성, 그리고 눈물의 감성성'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상'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은 완전히 사라진 채 미적 개념정치의 형식에서 아주 훌륭(?) 미학의 부분을 생략하게 되는 것이다. III. 어떤 언어나 개념의 고정된 절대적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본질적인 의미를 찾지않아도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은 '의미없음'이 변함없는 사실이 그 절대적인 의미일지도 모른다. 대중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석하려는 시도 또한 이러한 변화의 한 양상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시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문화학』(Culturology, or Cultural Study)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는 그러한 노력의 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문화학』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장시기 (문화대 영문과 강사)

달 하나 천 강에

책임있는 삶



국민학교 시절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장 핏대치고 밖에서 정성없이 놀다보면 어슴프레 저녁무렵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를 찾아 부르셨다. 동네 친구들과 조개 껍데기며 그릇 깨진 조각 등으로 소꿉놀이를 하고 나면 어머니께서는 어지럽다고 미련없이 휴지통에 보낸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이가 소중하게 갖고 노는 것이라고 다시 주워다 주시곤 하셨다. 그러면서 별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은 자기가 한 행동은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일이 었고제 같이 아직도 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어른세 30년전의 일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10년 세월이 된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오늘 이 맑은 가을 햇살 속에서 나는 그 분에 대한 그리움이 한층 짙다. 다음 생(生)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잠깐의 세월을 머뭇머뭇 보내고 나니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 무릉도원에서 바둑 한 수 두고 왔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다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듯 싶다. 앞으로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 것인가? 이러한 삶의 한 가운데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며 이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삶은 어떠한가? 주도적이며 책임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가치관에 기초를 둔 스스로의 의식적 선택의 결과이지 기분에 좌우되고 주변 여건의 탓에 의한 결과여서는 안 되는 삶, 이런 삶이 곧 주도적이고 책임있는 삶이라고 보면 어떠한가. 예를 들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일을 잤다가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고 '날씨'에 일의 성과여부의 원인을 돌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또한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잘 대해줄 때는 일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행한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행동의 결과는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라고 정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박명숙 자연대 교과교수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월경전 증후군-

보존적 조치·약물요법으로 치료 가능

심재철 (의대 산부인과 교수)

산부인과에서의 관점에서 볼때 인간이 다른 타 포유류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중의 하나는 여성들이 매달 치러야 하는 월경현상이다. 현대여성들이 매달 월경을 겪고 있지만, 임신과 모유수유를 담당하고 파일을 하지않는 원시부족이나 가까운 많은 자녀를 두었던 우리조상할머니 세대는 일평생 겪는 월경횟수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월경은 인간만이 누리는 생물학적 진화현상이 아니라 임신을 제한하여 가족계획을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자신의 피다를 발전을 도모하려는 인간의 사고변환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매달 겪는 월경으로 인해 여러형태의 여성들의 고통과 부인과정 질환이 과생되게 되었고 그중의 하나가 월경전 증후군이다. 월경전 증후군이란 20대와 30대 여성에서 주로 볼수있는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복합증상으로서 월경 시작전 1주나 2주로부터 시작하여 월경이 시작되면 증세가 사라지고 매달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특이한 현상이다. 아직 이 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생식연령 여성층의 난소기능의 주기성과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의 하나로 생각될 정도이며 미비한 증상을 보일때는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20

~30%의 여성에서는 심한 증세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여 어떤 형태로든 치료의 필요하게 되고 때때로는 대인관계나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가정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동반할수도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주증상이 피로, 두통, 복부팽만감, 유방통 또는 유방팽만감, 관절통, 어드름과 같은 신체적인 것이라면 개인의 문제로 그칠수 있으나 정서적 또는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개인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폭발적이거나 비이성적 행동 또는 인간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폭발적이거나 비이성적 행동 또는 인간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태를 보 이거나 참을성 없거나 광적인 공격, 성적욕망의 변화등이 있으면 필연

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범죄행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자신은 이 증상을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심한 증상이 있을때만 정신과병원을 찾겠다는 한계가 있어 서구에 비해 국내에서는 치료에 대한 경력이 많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이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급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치료는 주증상의 종류나 그 정도에 따라서 단순한 보존적조치나 좀 더 적극적인 약물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보존적조치란 이 증후군의 특징을 이해시키면서 의사와 가족들이 감정적 정서적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고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권유하는 일련의 환경적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반이상의 환자에서 증세가 호전됨이 보고되고 있다. 약물투여는 증세에 따라 투여하는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모든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는 아예 근본적으로 배양억제작용을 하는 약물을 통해 투여기간동안 월경을 제거함으로써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월경전 증후군이 환자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혼자만의 고민으로 뜯어두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는 것이 매달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보람있는 시간으로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문화단신

◇극단작은신화가 '조용한 손님' '라구요' '낙원에서 낮과 밤' 세편의 창작극을 오는 11월1일부터 29일까지 연주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우리연극만들기, 그 두번째'의 제목아래 우리연극의 형식과 내용을 개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 '과거는 우리시대가 풀어온 상처'란 주제의 세편의 연극은 지금은 과거가 되어버린 세대의 이야기를 화두로 전개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매작품 첫 공연

후 관객과의 공개토론회를 가짐으로써 공연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우리시대 연극에 관한 제반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청년문화론 전공의 사회학자 사이먼 프렌치가 지은 '복음악의 사회학 사운드의 힘'을 '한나래'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제1부 복음의 의미, 제2부 복음의 생선, 제3부 복음의 소비 순서로 실리는 이 책은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이다. 특목악과 대중문화에 관심있는 학생 및 연구자를 주축자로 하며 옮긴이는 자유기고가 권영성 번역가 김광수로 가격은 9천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아이싱링크도 매일밤 야간개장

매일밤 11시까지, 연중 야간개장

환상의 레이저 쇼가 펼쳐지는 젊음과 낭만의 세계, 롯데월드 야간개장!

무지개 빛 입체 레이저와 웅장한 음악- 첨단 멀티 미디어가 연출하는 빛과 소리의 대향연! 다양한 친구와 함께 달랠 밤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 문라이트 퍼레이드: 휘황찬란한 입체레이저 장식과 특수분장- 롯데월드의 전문 공연단이 어드벤처를 가득 메우는 초호화 버라이어티 퍼레이드
- 매일매일 이벤트: 인기 개그맨 표인봉과 디스코 DJ가 진행하는 고객 참여댄스파티! (매 주일은 연소공연 제외) 시간: 오후 8시 장소: 어드벤처 가든 스테이지
- 타코의 컨트리 밴드쇼: 컨트리 밴드 '이탈리아와 미용인'이 펼치는 흥겨운 컨트리와 팝의 세계! 시간: 오후 10시 장소: 어드벤처 가든 스테이지
- 즉석 행운권 증정: 야간 자유 이용권 입장객에게 행운권을 증정하여 당첨된 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상기행사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국 전통 소림 무술단: 1500년의 도도한 전통을 간직한 중국 소림사/취권, 소림 나한공 등 하남성의 소림 무술단이 중국 전통 소림무술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파격적인 할인가격, 즐거움은 두배! (오후 6시부터)		
입장권	8,000	자유이용권
3,000	8,000	10,000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1 (대표전화 411-2000)

학생자치기구선거 본격 시작

투표지역의 효율적 관리위해 지역선관위장 선정

전면 무기호제 등 공명선거방안 확대 실시

96년도를 이끌어 갈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지난 11일 단과대 의장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28대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후보자 등록이 전성국(경공 4), 최이선(통계 3)조와 김성현(산공4), 김기문(식물자원 4)조가 입후보한 가운데 마감되고 문과대와 사회대를 제외한 9개 단과대 후보자 등록도 지난 18일 마감됐다.

이후의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선거일정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소강당에서 대의원 총회 및 유세, 11월 6, 7일 투표이다.

제2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대용·불교 4 이하 총선위)는 선거시행세칙 준재이유를 들어 불미됨을 전제 폐지하고 의의가 있는 시연 의사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작년 공명선거의 일환으로 실시된 무기호 선거를 총학생회 선거뿐만 아니라 단과대선거에까지 확대 실시한다.

또한 중선위 내에 투표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지역별 해당대학 대의원을 지역선관위장으로 두었다.

중선위와 각 단과대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대용(총대의장·불교)

4) △제1지역(불교대, 예술대)선관위장은 이상엽(불교4), 이우원(연영 4) △제2지역(문과대, 이과대)선관위장은 김택경(사3), 최경원(통계4) △제3지역(법과대, 사회대, 경상대)선관위장은 최윤모(법4), 조용건(정보관리 4) △제4지역(생자대)선관위장은 우은식(응용생물4) △제5지역(사법대)선관위장은 엄정식(수교4) △제6지역(공과대)선관위장은 박형택(가공3) △제7지역(야촌)선관위장은 이재범(무역3) △총선위원장은 김재욱(총대부의장·영문4), 박용규(총대조직부장·경제4), 노정기(총대조직차장·아간경제4), 양부선(총대편집부장·불교2), 강은하(총대선전국장·수교4), 장석영(불교2), 이정원(철2), 이은석(연영2), 강상모(법3), 이준신(산림자원2), 김병수(생명자원생명경제3), 김선욱(국교3), 김상현(국교1), 이종철(수교2), 송호진(기공2), 배경철(화공2), 원서연(반도제1), 오영주(이부회계 4).

제28대 불교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방준배(선학3), 김관수(불교 2)조가 단일입후보 했다.

불교대 선관위(위원장=이상엽·불교4)는 23일 공교, 26일 1차유세, 31일 2차유세 및 공경회를

2) △제1지역(법과대, 사회대, 경상대)선관위장은 최윤모(법4), 조용건(정보관리 4) △제2지역(문과대, 이과대)선관위장은 김택경(사3), 최경원(통계4) △제3지역(법과대, 사회대, 경상대)선관위장은 최윤모(법4), 조용건(정보관리 4) △제4지역(생자대)선관위장은 우은식(응용생물4) △제5지역(사법대)선관위장은 엄정식(수교4) △제6지역(공과대)선관위장은 박형택(가공3) △제7지역(야촌)선관위장은 이재범(무역3) △총선위원장은 김재욱(총대부의장·영문4), 박용규(총대조직부장·경제4), 노정기(총대조직차장·아간경제4), 양부선(총대편집부장·불교2), 강은하(총대선전국장·수교4), 장석영(불교2), 이정원(철2), 이은석(연영2), 강상모(법3), 이준신(산림자원2), 김병수(생명자원생명경제3), 김선욱(국교3), 김상현(국교1), 이종철(수교2), 송호진(기공2), 배경철(화공2), 원서연(반도제1), 오영주(이부회계 4).

제28대 사법대 정·부학생회장 후보로 김종일(법2), 강성욱(법2)군이 출마했다.

법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최윤모·법4)는 19일(23일)부터 후보자 공고 및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11월 1~2일 양일간 투표할 예정이다.

제28대 사법대 정·부학생회장 후보로 김종일(법2), 강성욱(법2)군이 출마했다.

사법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중근·사학4)는 지난 18일이 후보자 등록마감일이었으나 등록된 후보자가 없어 15일 이내에 재공고하고 선거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제28대 경상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하재기(경제3), 황하중(무역2)조가 단일입후보 했다.

경상대 선관위(위원장=조윤건·정보관리4)는 26일 1차유세, 30일 2차유세를 하고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제28대 생명·부학생회장 후보로 장광배(식자3), 한진구(생명자원경제 3)조가 출마했다.

고 11월 1~2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문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택경·사3)는 지난 18일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이었으나 등록된 후보자가 없어 일정을 연기했다.

제12대 이과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박노철(수학3), 최철웅(화학2)조가 단독 입후보 했다.

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최경원·통계3)는 오늘(23일)부터 후보자 공고 및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11월 1~2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제9대 법과대학 정·부학생회장 후보로 김종일(법2), 강성욱(법2)군이 출마했다.

법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최윤모·법4)는 19일(23일)부터 후보자 공고 및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11월 1~2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사회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중근·사학4)는 지난 18일이 후보자 등록마감일이었으나 등록된 후보자가 없어 15일 이내에 재공고하고 선거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제28대 사법대 정·부학생회장 후보로 김종일(법2), 강성욱(법2)군이 출마했다.

사법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중근·사학4)는 지난 18일이 후보자 등록마감일이었으나 등록된 후보자가 없어 15일 이내에 재공고하고 선거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제28대 경상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하재기(경제3), 황하중(무역2)조가 단일입후보 했다.

경상대 선관위(위원장=조윤건·정보관리4)는 26일 1차유세, 30일 2차유세를 하고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제28대 생명·부학생회장 후보로 장광배(식자3), 한진구(생명자원경제 3)조가 출마했다.

제28대 사법대 정·부학생회장 후보로 김종일(법2), 강성욱(법2)군이 출마했다.

사법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중근·사학4)는 지난 18일이 후보자 등록마감일이었으나 등록된 후보자가 없어 15일 이내에 재공고하고 선거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모범이용자·봉사자 시상

중앙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과)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모범이용자와 모범봉사자 시상식을 내일(24일) 오전 10시 총강당에서 가진다.

수상자는 △모범이용자는 김경순(전자공2), 김진(법2) △모범봉사자는 김현태(전기공 2), 이종화(산공 2)군이다.

모범이용상은 매년 9월에 시상되는데 선정은 3월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출근수가 상위 학생중에서

자신의 전공서적과 학습도서를 많이 대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례가 없어야 한다.

또한 모범봉사자의 경우 근로 장학금으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한학기 이상 근무했으며 성실하고 근면한 학생을 선발한다.

열람과 입부수 계장은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도서관 이용을 높이기 위해 이 행사를 하고있다"고 행사목적 밝혔다.

졸업증명서 전산발급 확대 실시

50년대 졸업생까지 대상폭 넓혀

90년도 이후 졸업생에게만 가능했던 졸업증명서 전산발급이 오는 11월 1일부터 법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와 1950년도 이후 졸업생(31년전7백66명)에게 까지 확대 실시된다.

학부 전산화로 인한 졸업증명서 전산발급은 학적부의 중요성으로 인해 용역을 주지않고 학과과가 지난 4월부터 직접 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중이다. 또 이번 학기안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법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도 전산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과와의 한 관계자는 "행정체인의 일환으로 계획된 일이며 이 작업으로 인하여 행정업무가 신속·수

월해질 것은 물론 졸업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각원 추계 명찰순례

제5회 추계 명찰순례가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후관으로 27·28일 이틀동안 경북 영주시 소백산 부석사에서 열렸다.

정각원의 한 관계자는 "명찰순례를 계기로 불교신자는 불심을 더욱 돈독히하고 불교인이 아닌 사람은 불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기바란다"며 "이번 순례는 부석사에서만 행해지므로 더욱 내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정대 유학생 선발

석·박사 과정 대상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과)는 오는 30·31일 양일간 '96학년도 일본 대정대학학위과정 유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시험은 석·박사과정 2명을 선발하는데는 원서는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은 학술교류부, 경주는 학생과에서 배부 및 접수하며 시험은 △1차시험(30일 오전 10시 △2차시험(31일 오전 10시)에 서울·경주점 일괄적으로 학술교류부에서 실시한다.

한편, 합격자발표는 오는 11월 6일 본관4층 학술교류부 앞에 게시한다.

하와이대 영어연수 27일까지 접수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과)는 오는 27일까지 미국 하와이대 영어연수 참가자 신청을 받는 다.

모두 20명이 선발되며 약 7주간의 영어연수후에는 해외영어연수확정 3학점이 인정된다.

후학생을 포함해 본교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재학 및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의 서류를 구비해 학술교류부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설명회

제일화재보험 동부생명

96년도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회사 소개 및 채용정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 이번 회사 설명회의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제일화재보험=23일 1시 동국관(L101) △동부생명=24일 3시 동국관(L301).

제일화재보험 및 동부생명의 회사 설명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저자권심의조정위원회와 법과대학회(회장=나상원·법4)추위로 동국관(L306)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대학원을 위한 저자권특강'이란 주제로 아래 '저자권의 기초' '대학생활과 저자권 문제'라는 소주제가 발표된다.

외전무대

미국우주선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우주선(?) 외국어 실습실에 들어가는 학우들은 흡사 우주선을 타는 기분이라고.

기자재의 잦은 고장으로 2시간간 영어실습시간이 30분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이에 영약을 금지 못하는 한 학우 "우주선 고장은 관제탑, 영어실습실 고장은 고질탑"이라며 일침.

따로국밥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은?

학교의 주요 매점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수거함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분명히 종이에는 종이, 캔에는 캔이 있어야할 분리수거함은 겉에 쓰인 글자따로 내용물따로 따로국밥을 연상시키는 데.

이에 한 학우 왈 "글을 읽는 능력은 세계 1위 그러나 실천하는 능력은 과연 세계 몇위?"

정신없군!

○...얼마전 일본총리의 '한·일합방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자민당내에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담은 책까지 배포되고 있어 말짱이라는데.

'대동아총합'이란 이 책에는 '일본은 헛이름만 남는 조선의 독립을 취소하고 병합한 것'이라는 주장마저 담겨있어 우리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본의 '과거 미화'열풍이 이어질지언니를 지켜보던 한 학우 왈 "키크고 속없는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망언록

○...지난 9월 통일광장에서 차를 몰아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던 얼마되지않아 동국관학우들은 또다시 울상이라는데.

그동안 차의 진압을 막기 위해 세워두었던 피켓을 치우자마다 다시 차들이 통일광장에 자리를 잡은것.

그나마 주차되지 않은 공간은 축구장으로 분간해 학생들은 차 피하라 공 피하라 정신이 없었고.

이에 한 학우 왈 "꼭 맞아야(?) 말을 듣나?"



◇공, 아직도 길길은 먼데... 지난 12일 마라톤 대회에 끝으로 백상 예술제전의 막을 내렸다. 사진은 마라톤에 참가해 남산순환도로를 따라 달리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취재부)

대학원 학생 모집

199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모집과정 및 학과
 - 가. 석사과정
 - 인문사회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이 학 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응용생물학과, 가정학과.
 - 공 학 계: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계산학과.
 - 자 연 계: 농학과, 임학과, 조경학과
 - 예 체 능 계: 체육학과, 미술학과, 연극영화학과.
 - 의 학 계: 한의학과, 의학과.
 - 나. 박사과정
 - 인문사회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이 학 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응용생물학과, 가정학과.
 - 공 학 계: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 자 연 계: 농학과, 임학과
 - 예 체 능 계: 연극영화학과.
 - 의 학 계: 한의학과, 의학과
2. 모집인원: 석사 과정 000명, 박사 과정 00명
3. 시험과목
 - 가. 석사과정
 - 1) 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 다)구술고사
 - 2)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문항(독해형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각 학과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학과별로 실시함.
 - 나. 박사학위과정
 - 1) 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공통, 세부전공) 다)제2외국어(해당학과에 한함) 라)구술고사
 - 2) 시험내용
 - 가) 영어시험은 4개 문항(독해형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학과 공통과목 및 세부전공 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 나) 제2외국어 부과목: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철학과
 - 다) 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어, 일어, 영어, 한문 1, 한문 2 (불교학문), 중국어중 백일(단, 영어는 인도철학과, 한문 1은 철학과(중앙철학 전공), 한문 2는 불교학과 지원자에 한함.)
4. 시험일정
 - 가. 원서교부: '95.10.30(월) - 11.10(금) 나. 접수기간: '95.11.8(수) - 11.10(금)
 -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부 라. 일시장소: '95.11.24(금) 09:00 동국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260-3093, 260-3094

1996학년도 전기(야간)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특별전형

본 경영대학원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경제발전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고자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경영학 석사과정 (마케팅/조직 및 인사관리/부동산/세무관리/국제경영/생산관리 및 계약경영/세무회계/재무회계/관리회계/경영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금융 및 재정/산업경제/무역이론/무역실무/무역보험 및 해운/무역경영/노사관리 전공)
2. 모집인원: 00명(모집정원의 50% 내외)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지원자격
 - 가.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이상 직장근무경력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자
 - * 기업체·사회단체의 중견간부
 - * 고위 공직자 등
 - 나. 사범·행정·기술고시 및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국가고시 합격자
5. 원서교부 및 접수: '95.10.30(월) - 11.8(수)
6. 면접일시: '95.11.11(토) 14:00
- * 문의처: 경영대학원 교학부 ☎ 260-3106, 3107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장

'96년도 일본 대정대학 과연 유학생(학위과정)선발

1. 선발분야 및 인원: 가. 선발분야: 대정대학 개설 전학과 나. 학비면제(숙식비 등은 본인 부담) 다. 선발인원: 석·박사과정 2명
2. 자격요건
 - 가. 본교 96년 2월 학부 졸업예정자 및 석·박사과정 재학생인 자 (졸업예정자 중 미출업자는 자격상실)
 - 나. 학부/석사/박사과정 전공이 일치하는 자
 - 다. 학부/석사/박사과정 성적 평점평균 3.3이상인 자
 - 라.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유학기간: 석사-2년, 박사-3년
 - 4. 유학조건: 학비면제(숙식비 등은 본인부담)
 - 5. 선발일자: '95.10.30(월)~31(화)
 - 6. 선발방법: 공개경쟁(면기, 회화, 면접)
 - 7.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재학증명서 1통 다. 성적증명서 1통
 - 8. 시험일정(서울, 경주 동일함)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95.10.27(금)~10.27(금)-학술교류부
 - 나. 시험일시: 1차(면기)-10.30(월) 10시, (회화)-14시 - 학술교류부 2차(면접)-10.31(화) 10시 - 학술교류부
 - 다. 합격자 발표: '95.11.6(월) - 학술교류부 및 게시(본관 4층)
 - * 경주캠퍼스: 원서 교부 및 접수-경주캠퍼스 학생과 (시험은 서울에서 일괄 실시)
- 해외 영어연수 참가자 선발
 1. 국가명: 미국
 2. 대학명: University of Hawaii
 3. 기관명: College of Continuing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
 4. 기간: '96.1.11 - 2.28(약 7주간)
 5. 선발인원: 20명
 6.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후학생도 가능)
 7. 특선: 학점인정(해외영어연수 3학점)
 8. 경비총액: \$3,875(한화 3,100,000원)
 9. 경비내역: 가. 수업료: \$1,100 나. 숙박료: \$1,250 다. 식대: \$750 라. 항공료: \$700 마. 교재비: \$75
 10. 기타 제정비(수속경비, 보험료등)는 자비부담
 11. 신청기간: '95.10.23(월)~27(금)
 12. 신청장소: 학술교류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류부로 문의 바람(전화 260-3025)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지난 9월 13일 입법예고된 영상진흥법안은 온 영화인들의 소망이자 기대를 한몸에 안고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그 준비작업은 문민정부가 들어서 이후 꾸준히 오랜 기간을 지속해 왔고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영상의 진흥은 커녕 구시대적 악법조항을 사실상 그대로 연장하는 시의 안일한 행정적 처사가 노골화되어 그 문제의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의 영상진흥법안에 내제되어 있는 조항중 "영화업의 등록(제4조)"대상에서 비극영화, 단편영화, 소형영화를 제외하여 놓고, "영화의

영학의 패러독스

-현 영화악법과 심의제도의 한계

영상진흥법안, 구시대 악법조항 그대로 연장 사전심의제 폐지·영화등급제 고려 안해 "국가 통제정책이 우리영화 낙후시킨다"

심(제12조)에서 '모든 영화는 상영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범죄 규정(제30조)"에서 '심의 미발 상영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놀라움은 첫째, 문민정부가 주도한 영상진흥법안이 과거정권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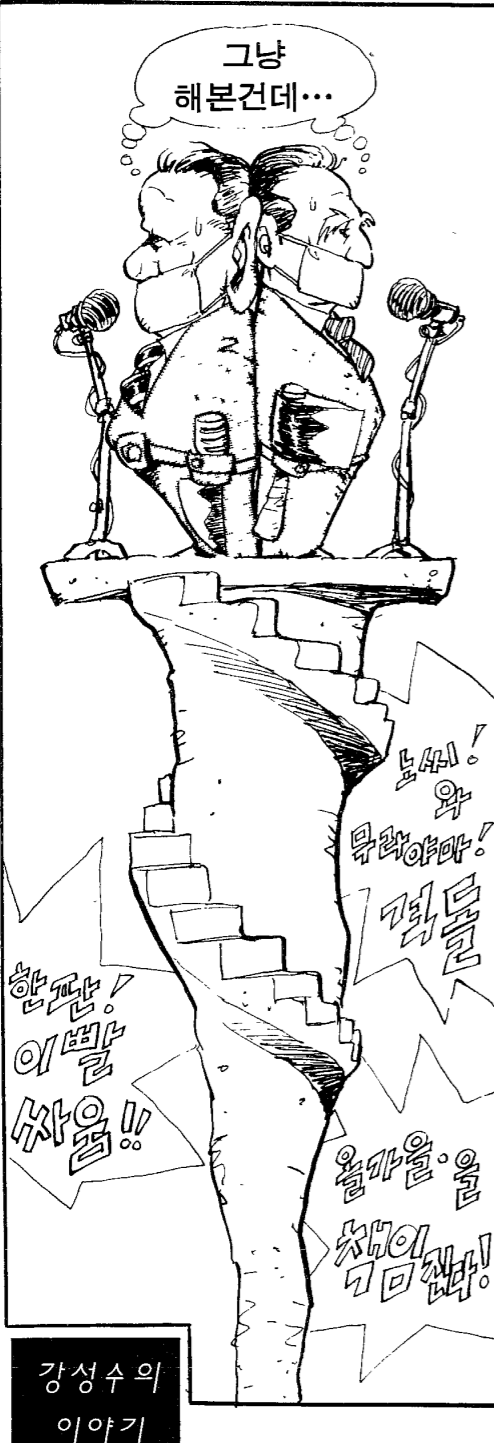
사실과, 둘째, 그 동안 영화계 및 업계, 기타 문화관계자들이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이미 결정사항을 본 것과 다른데는 창작물의 사전심의 폐지 및 영화등급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악영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될 수 있다.

첫째, 전국대학의 영화학도들이 제작하는 연간 2백여편의 단편영화나 독립영화단체에서 제작하는 독립영화의 창작이 가위질 대상이 되어 과거 정권이 행해왔던 검열과 동의 특수성을 되풀이 해야할 것이란 점이다. "장산곶매"의 '파업전야'가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이 있고, 독립영화를

창작하는 영화인들은 검열을 의식하여 불필요한 자기검열을 갖거나 마치 불법자의 심리처럼 몰래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경과민상태로 작업에 임한다. 둘째, 국제화를 표방한 문민정부는 영상물의 국제화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해마

다 2백여편 가까운 국산영화를 생산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선 확보 및 국제영화제 대상의 경쟁에서 항상 낙후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국가의 영화통제정책이 기인한 자유로운 소재의 제한과 과잉 검열로 인한 상상력의 고갈 때문이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 사실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과거

의 악법이었던 고갈때문이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 사실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과거의 악법이었던 영화법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자본과 기술만이 아닌 창작표현의 자유에서 국제화의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매학기마다 발표하는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의 실습영화를 대중공개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이방에서 영화를 창작할 학생들은 아무도 없다. 지금도 우리는 검열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실정법상으로 우리는 모두 불법을 한 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처벌 받기 이전에 관계당국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그런 현실에 맞지도 않는 모순된 법을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도는 여실장작을 단지 정치적 규제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않는 시대착오적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강성수의 이야기

◆학술제 재조명 단과대·과 특성 살린 학술제 부족 고민·참여 부족 '고질병' 고쳐져야

9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실시하는 학술제가 단과대별, 과별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로서는 단과대에서 학술제를 대부분 마련 상황으로 학술제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아야할 시점이다. 가을 학술제를 위해 여름방학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여러모로 예전 점안 보이지만 수정없이 계속해서 이어오는 학술제의 고질병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학과와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작년의 학술제를 그대로 답습한 행사가 많았다. 영화상영, 연극공연등은 매년 가을 학술제가 시작할 때 쏠 나오는 단골메뉴였다. 이와같은 행사가 보편화된 것의 원인은 고민 부족에 있다. 각과와 특성을 바르게 파악, 이해하고 응용하여 활동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잘 살린 예로 법과 대학 형사법학회가 주최한 형사모의재판과 불교학과 소묘인 'NEO만다라'의 영화상영을 들 수 있다. '배우자 폭력과 정담방위'라는 주제로 페미니즘과 성폭력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인 형사모의재판을 통해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사회계 관심사인 성폭력의 법률적 지식을 쉽게 이해시켜 주었다. 또 법과생 자체로서도 형법적 해석과 법수사학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NEO만다라'가 선정한 영화는 학과와 특성에 맞게 종교영화 '만다라' '잔다르크의 열정'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줄 '파업전야' '데미지'를 상영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둘째, 단과대 차원에서의 학술제 운영의 부실을 꼽을 수 있다. 단과대학 자체에서의 준비 미흡, 운영 인원의 부족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단과 학술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 단과대학의 소속감 함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대로 공동체 의식이 돋보인 것이 있다면 녹두거리문화제를 꼽을 수 있다. 공과대와 이과대, 동아리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린 '녹두거리문화제'는 주민들까지도 동참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다. 셋째, 학생들의 참여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학생들을 많이 모으기위해 영화상영을 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지만 이의 대부분 높은 참여율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뿐 학술제에 걸맞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의 발단은 학생전체가 어우러지는 행사의 부족이다. 그만큼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키위한 노력의 부실이고 찾고자하는 고민의 부족때문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금년으로 끝나는 학술제가 아닌 이상 그것에 대한 사전준비에 확고해야 한다. 또한, 관심도 폭넓게 확대시켜 내년에는 재미로써 일례의 행사를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술제를 통해 자기가 소속한 학과와 단과대에 더 큰 관심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고민을 촉적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동인적인 기대할 학술제가 되지 않을까. (한상승 기자)

◆신라예술인 뉘그러는 '시벌향연의 밤' "우리 것 지키고 찾음은 후손의 도리"



살아숨쉬는 소리가 귓전에 들린다. 신라 천년의 긴긴 짐승에서 막 꺼어난 생생한 부활의 소리인듯. 신라문화동인회를 주축으로 신라 문화를 사랑하는 후손들이 신라시대 이름없이 사라져간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 문화예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8일 계림술 내물왕릉에서 '시벌향연의 밤'을 열었다. 이 날을 위해 한달전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하고 나쁘고 흉한 것을 멀리하며 부부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기까지 하여 조상을 맞이하는 신성함을 보였다. 이 행사의 1부 향연에는 계림술

과 김알지 전설에서 유래된 아침을 여는 닭의 형상을 배경으로 계단을 마련하고, 2부 향연에는 경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시낭독, 연극, 국악, 연주, 무용 등 신라문화 창조의 주역인 옛 신라인들을 위해 봉헌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주문인협회 김기문시인의 헌시를 비롯해 올땀 국악단 부원장의 살풀이 춤, 극단 두두리 단원들이 펼친 사물놀이 흥겨운 가락을 마지막으로 헌사의 시간을 마무리 했다. 제를 마치고 마린한 음식과 술을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음복(飮福)했다. 쌀쌀해지는 가을날씨 모닥불

도 군데군데 두고 술을 주거나 받거나 하다보니 어느새 옛 신라조상들과 신라 후손들 모두 취기에 흥안이 되었다. 그때도 이날만큼은 술에 취해 걸작 걸음으로 시내를 누비고 다니다도 흥분은 이가 없다고 한다. 우리의 것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지키고 찾으려는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에 호응함을 느끼며 반월성 김알지 탄생설화의 배경인 계림술, 내물왕릉에서 신라천년의 조상들과 환한 어울림을 띠를 내렸다. (하민희 기자)

메이리 비자금

▲당신의 비자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비밀이구요! 아내가 알면 큰일난다구요. 이전번에 안방 천정에 숨겼다가 보수공사 할때 들켜 혼났단말이요~. 그래서 요즘은 허리띠속에 은밀하게 넣고 다닌다구요. 또한 배게 속에 넣고 자기도 하구요.-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온 '설리맨의 비자금(비자금)'에 관한 짧은 한마디 ▲명칭만 것들, 내 비자금은 안전하게 은행에 예치돼 있는 데, 그것도 40개 계좌로. 물론 차명으로 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지. 차명계좌에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나? 전만에, 차명계좌도 예금의자가 실제 존재하면 실명계좌로 보니까

틀인가! 지난 8월에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의 법인은 해프닝으로 처리됐지만 이번엔 어렵없을걸! - 검찰에 대 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착수를 요구하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백억원대 차명계좌변호를 밝히는 비계종 의원의 한마디 ▲비자금(私資金), 문자 그대로 비밀스런 돈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은밀하게 숨겨둔다. 월급장이 남편이 아내에게 비상금을 들기면 무뎠고 사죄하는 게 당연시된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4천억을 퇴원 직전에 조성해 이를 교묘히 관리하다가 피리가 밟히니가 모른다고 발뺌을 하더니! 난 알고 싶다. 6공의 4천억원 비자금의 진실! - 검찰의 공정하지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본기자의 한마디. (주)

이 땅의 젊은 지성이여-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한화그룹 인사원 모집요강. Includes a globe graphic and detailed recruitmen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HR, Finance, and Engineering.